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잘린 수인 발견

철불 존명 밝힐 근거, 서지류 등도 함께 발견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41호)의 수인이 발견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실상사(주지 해강)는 3월 7일 약사전 철불 해체보수 작업 중 북장내부에서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철조여래불의 양쪽 수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수인은 양손 모두 중지(가운데 손가락)와 엄지 손가락으로 둥글게 원형을 표시한 중품승생인의 모습으로 발견됐다.

학계에서는 이번 수인의 발견으로 그동안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86년 보수 당시 세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다수 수습됐다.

철조 수인이 발견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일본의 지기를 누른다는 속설이 전해

져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양손목이 절단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수습과정을 지켜본 실상사 부주지 응묵 스님은 "1986년의 수리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철조 수인의 보관위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인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일제 강점기 당시 잘린 설화 있어 현재 목재 수인 대체 예정 '사상불사' 앞두고 복원 계획

목재 수인 대신 철조 수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실상사 담당자는 "현재 실상사는 '철불 제자리 찾기와 실상사가람배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축불사, 마을불사, 인제불사와 더불어 구산선문 최초기암 실상사의 창건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사상불사까지 염두에 두고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상사의 철불



철불 북장에서 발견된 수인, 북장에서는 각종 서지류 등도 발견됐다.

은 실상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상사는 노후된 약사전의 연목 및 기와의 보수필요성 제기한 이래 약사전의 전면해체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상사는 철조 여래좌상의 원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전각 내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약사전 발굴조사에서는 약사전에 봉안된 철

불의 훼손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긴급보수정비가 실시됐다.

지난 1963년 보물 41호로 지정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실상사 창건(822년)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흥 보림사, 동해 삼화사의 철불등과 함께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부부포교사 탄생

"부부가 함께 포교사가 된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함께 열심히 전법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신행경력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제18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전북지역 35명의 합격자중 2쌍의 부부 포교사가 탄생해 지역 불교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엄불교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이승규, 윤정인 부부와 류성관, 김성순 부부다. 신행경력이 가장 오래된 이승규 예비포교사는 아버지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천안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신심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신행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파라미터 창립 멤버로도 활동했다.

부인인 윤정인 예비포교사는 결혼과 함께 불교에 입문해 그동안 지구촌공생회 전북지사 간사와 전북불교회관 재무간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비교적 신행경력이 짧은 류성관 김성순 부부는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한 것은 불교 5년에 불과하다.

이들은 포교사가 되기 전 함께 장례식장 염불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불심을 다질 예정이다.

그동안 작은 암자에 다녔지만 신도교육은 시키지 않고 비불교적인 방식으로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스님에 실망해 제대로 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에 제작사찰도 금산사로 옮기기도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포교사고시에 합격했다.

이들 부부의 공통점은 모두 가정의 일



좌로부터 이승규, 윤정인 부부 김성순 류성관 부부 예비포교사

방적인 결정이 아닌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종교와 비교해 가족 모두가 거부감이 없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를 찾다가 불교에 입문한 경우이다. 2쌍의 부부 모두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이승규 예비포교사는 "학생들과 수학여행 도중 생선 예수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절에 왜 예수가 있냐는 학생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류성관 예비포교사도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으면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사찰내부에서 활동하며 불교문화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포교사가 되기 전 함께 장례식장 염불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불심을 다질 예정이다.

이들은 "포교사 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더욱 부부의 정이 깊어지고 그동안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가족 간에도 더욱 화목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옆에서 지켜본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과장은 "부부포교사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포교활동에도 열심히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공부 실천도 함께 할 터"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 및 입학식

전북지역의 재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과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형)은 2월 24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법당에서 불기 2556학년도 불교대학 23기 학원원 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장면

화엄불교대학 75명, 학원원 28명의 불자들이 졸업한 이날 졸업식은 학장 원형 스님(전주 금산사 주지)을 비롯해 전북불교회관 원강 보룡 스님,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 신행 스님,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불자들은 지난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천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법우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원형 스님은 축사를 통해 "보살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뛰어난 학업성과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오순석, 최길원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졸업생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립)도 2월 24일 오

전 관음사 3층 대웅전에서 불교과 22기 23명의 졸업식을 병행했다. 학장 덕립 스님은 "열악한 지역 불교실정을 감안해 졸업생 모두 전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졸업한 화엄불교대학과 이리 불교대학의 졸업생들은 모두 조계종 신도품계인 '부동' 품계를 품수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도 2월 24일 완산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불교학과, 법사와 졸업식을 병행했다. 또 무주 불교대학은 3월 3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한편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3월 3일 불교대학 25기 50명, 화엄학원원 20기 34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들은 "배우고 익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청정한 삶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시 읽으며 다지는 불심한마당

선덕사 시 읽는 모임 나루터 인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중략)"



선덕사에서 열린 '나루터' 장면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 낭송됐다. 스님, 교수, 의사, 시인, 가정주부 등 어울리기 힘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은 각기 생활의 잡념을 내려놓고 시어(詩語)가 주는 아름다운 음율을 감상한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도심 속 사찰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원목)의 시(詩) 읽는 모임 나루터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덧 방안을 채우고 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시를 감상하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형식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을 낭송하고, 서로의 느끼는 점을 말하면 된다.

이날 시 낭송에 참가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우연히 시인들과 같이 차를 타면서 시 읽는 아줌마 모임을 만들고자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시인들을 초청해 같이 시집을 읽고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날 시 낭송에 참가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우연히 시인들과 같이 차를 타면서 시 읽는 아줌마 모임을 만들고자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시인들을 초청해 같이 시집을 읽고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날 시 낭송에 참가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우연히 시인들과 같이 차를 타면서 시 읽는 아줌마 모임을 만들고자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시인들을 초청해 같이 시집을 읽고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말했다.

날 참가자들이 내 놓은 자신만의 시는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이대홍의 '오래된 편지', 채호기의 '편지', 김중삼의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가 낭송됐다.

이날 한 참가자 시인은 "시인은 항상 현재이다. 그래서인지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다"고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했다.

요세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80~90년대에는 누구나 시집 한권을 들고 다니며, 시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이를 대체했다.

선덕사 주지 원목 스님은 "누구나 쉽게 시를 접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062)263-466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성 대원사 성보 보물 승격

전남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寶城 大原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一括, 지장보살도·시왕도)'은 3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지장보살도·시왕도는 1766년 명부전 봉안용으로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民)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명부전 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사자도가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예다. 각 그림마다 제작 시기와 봉안처 등을 기록한 화기

(書記)를 동반하고 있다.

대원사 불화는 조선시대(1766년?영조 42)에 명부전(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열라대왕 등 시왕을 모셔 놓은 절안의 전각) 봉안용으로 조성된 불화로 지장보살도 1점, 시왕도 10점, 사자도 2점 등 모두 13점이며 9폭으로 표구돼 있다.

조성 이후 계속 보성 대원사 명부전에 보존돼 오다가 1946년 광주 덕림사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1948년 사회 혼란기에 대원사 명부전은 불에 탔으나 극적으로 화를 면했고, 2003년 대원사로 돌아와 2004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돼 현재는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주지스님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신 불자 및 주지스님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 국민행복 불교조직 중앙본부장 회암(정영춘)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합장 대한불교종단진흥 총연합회 회장 합장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8가길 16-1 전화 : 02)3436-0796~7 인터넷 검색 (대한불교 본조계종)

※ 종단 가입등록 받습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스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형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